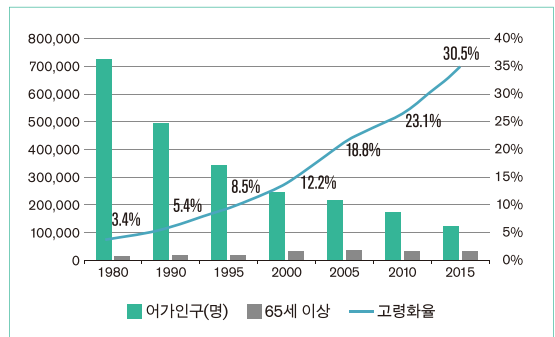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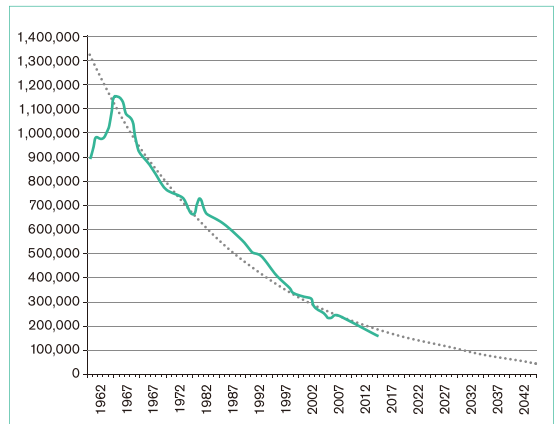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현황과 과제*

김민경
지역재생연구단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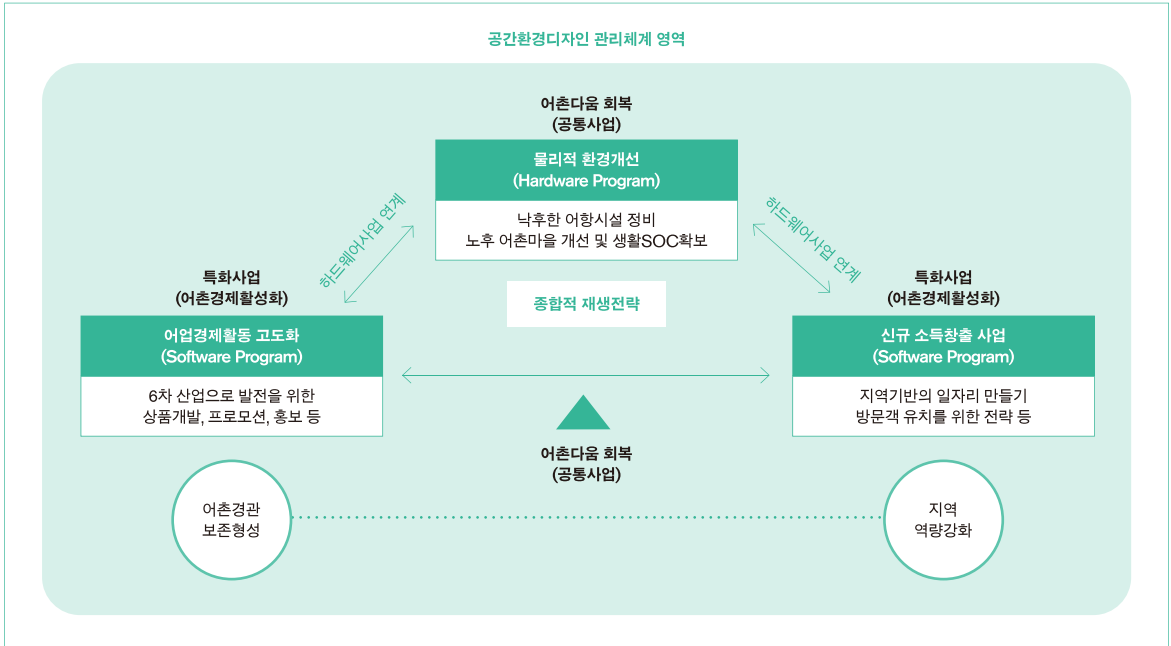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6.8%를 차지하는 어촌지역은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고령화로 인한 어업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총 492곳의 어촌지역 읍·면·동 중 58%인 284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어촌지역의 배후주거지**는 기초생활 인프라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할 뿐 아니라 도시지역과 달리 50년 이상 된 빈집이 전체의 60% 이상(12만 7,014호)을 차지하는 등 정주환경의 개선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전의 「어촌·어항법」상에서는 ‘어촌 종합개발계획’과 ‘어항개발계획’으로 이원화된 법



어촌지역 어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율 증가
출처: 박상우 외(2018, p.37)

* 이 원고는 건축공간연구원의 2020년도 수탁과제인 ‘2020년도 어촌·어항재생사업 디자인 제고 모니터링 위탁’ 결과물의 일부를 발췌·정리하여 작성하였음.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격
출처: 서수정 외(2019, p.125)

정계획체계를 가지고 있어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까지 고려한 통합적 계획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 추진되어오던 어촌의 국비지원사업도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항정비사업, 어항진입로 개선, 어항인프라 등 물리적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거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6차산업 시범사업’ 등 어업환경 및 소득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양수산부는 쇠퇴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과 어항의 통합적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어촌과 어항지역의 통합적 재생방안을 마련하고자 어촌뉴딜300사업(어촌·어항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지역을 연계·통합하여 정주여건을 개

선하고 수산·관광 등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산업 발전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통합된 재생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 측면에서 어항정비와 어촌마을의 재생사업을 결합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신규 소득창출사업 발굴 및 기존 어업경제활동을 고도화하는 종합적 재생전략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은 2019년 「어촌·어항법」 개정(2019.8.

- * 해양수산부(2019a)
- ** 어촌지역은 농촌과는 다르게 어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항구역과 그 배후에 자연스럽게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배후주거지 형성으로 인해 주거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 ***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어촌지역에서 생활서비스까지 평균접근시간은 의료시설 89.5분, 교통시설 54.8분, 판매시설 34.2분, 교육시설 12.9분 등이 소요되고 있다. 문화시설 수도 3.61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출처: 해양수산부(2019a)]

27.)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촌·어항재
생사업은 2019년 70곳, 2020년 120곳, 2021년도 60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국비 70%와 지방비
30% 매칭으로 지역당 평균 100억 원씩 3년간 1조
2,000억 원(국비 8,400억 원, 지방비 3,6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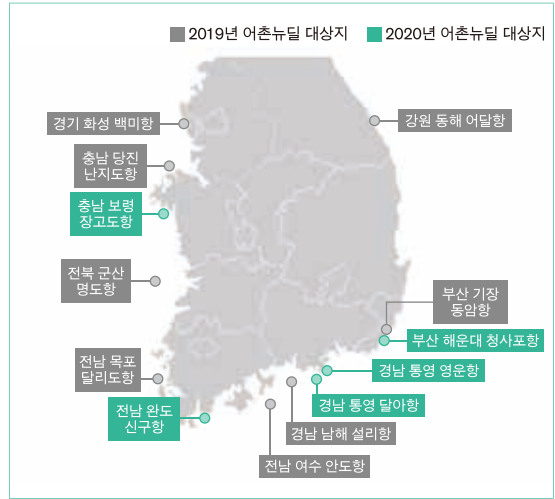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지자체 관리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촌과 어항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첫 중앙부처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의 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어촌·어항재생 선도사업 추진 목적 및 성과

중앙부처, 지자체 담당자, 위탁사, 계획수립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어촌·어항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사업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기존의 어항 중심 사업추진 방식과 다른 어촌·어
항재생사업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한 공유와 선도모델
제시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중
선도사업 대상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 선도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차이

구분	2019년도 선도사업	2020년 선도사업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별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운영 · 사업 총괄 및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플랜 수립 주체에 코디네이터 역할 부여 ·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코디네이터 선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발주여건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진행 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 발주 →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추가용역 ② 기본계획 용역 기 발주 →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추가용역 ③ 기 발주 용역 없음 →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용역(기본계획 포함)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역역량강화사업 통합 진행
디자인 검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위원 구성) 공간환경 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지역별 어촌뉴딜 자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위원 구성) 권역별 총괄조정가 및 공간환경 디자인 관련 전문가 · (사전검토체계) 검토회의 이전 사업추진단의 사전검토의견을 제시하여 피드백 과정 마련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총괄조정·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조정심의위원회 구성) 권역별 총괄조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조정심의위원회 구성) 권역별 총괄조정가 중에서 선도사업 총괄조정심의위원회 구성



어촌·어항재생 선도사업 대상지

출처: 서수정(2020, p.13)

선도지역으로 2019년도 8곳과 2020년도 5곳을 지
정**하여 공간환경의 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관리
체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선도사업 추진의 주요 목적은 크게 ①장소 기
반의 통합적 계획 수립 ②어촌·어항재생사업에 적
합한 디자인관리체계 제시를 통해 계획 및 설계절차
의 정상화 유도 ③공간환경 마스터플랜과 공동체 프

로그랩 간의 정합성 확보 ④계획 및 설계의도 구현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통합적 어촌·어항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원칙을 크게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 고유의 경관과 자연환경 및 해양자



2019년도 선도사업 남해군 설리항 공간환경마스터플랜(안)
출처: 남해군(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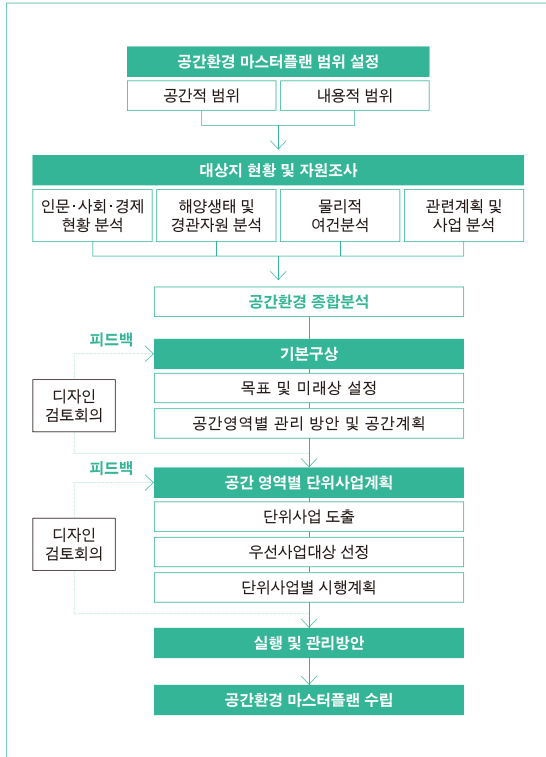


2019년도 선도사업 당진시 난지도항 공간환경 종합분석도(안)
출처: 당진시(2020)

원을 활용하여 어촌다움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둘째, 생태·문화·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마을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행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현실 가능한 이용수요를 파악하고 운영관리계획을 반영한 적정규모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동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여섯째, 운영관리주체인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어촌·어항재생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반지역까지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년도 사업준비를 위해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별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설계자 선정방식이 개선되도록 유도하였으며,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은 중요한 성과로 보인다. 2021년도에는 2019년도에 선정된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공간환경 마스터플랜과 설계에서 제시된 안들이 시공단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의도 구현의 의무화 유도, 지속적인 선도모델 발굴을 통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한 일반지역의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 * 해양수산부(2019b)
- ** 어촌뉴딜 선도사업은 사업목표의 적절성, 경관자원의 잠재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적정성 및 추진역량, 지자체 사업추진의 의지, 생활서비스 및 안전인프라 정비 효과, 공간환경개선효과 등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함.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절차
출처: 해양수산부(2020, p.3)

맺음말

남쪽의 작은 어촌마을인 통영 달아항을 서울에서 대중교통 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기차(KTX)로 55분, 시외버스로 2시간 30분, 다시 시내버스로 1시간 16분, 도보로 15분을 가야만 한다.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산자원 등 지역자원이 풍부한 어촌지역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로컬리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촌지역이 국내 관광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쇠퇴하고 있는 어촌·어항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어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촌·어항재생사업

의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 1 남해군.(2020). 남해군, 설리지구 어촌뉴딜사업 8대 선도사업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내부자료).
- 2 당진시.(2020). 「당진시 난지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8대 선도사업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협의 요청서」.(내부자료).
- 3 박상우, 류정곤, 황재희, 이상규.(2018). 인구소멸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4 서수정, 이상민, 임정하.(2019). 어촌뉴딜 300사업 디자인 제고를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 5 서수정.(2020). 2020년도 어촌뉴딜 선도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전체 디자인워크숍 발표자료.
- 6 서수정, 이상민, 오세원, 김민경, 임정하, 백하영.(2020). 2020년도 어촌·어항재생사업 디자인 제고 모니터링 위탁. 해양수산부.(최종결과물 자료)
- 7 해양수산부.(2020). 『어촌뉴딜 300사업』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안).
- 8 해양수산부.(2019a).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0~2024).
- 9 해양수산부.(2019b).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12월 12일 보도자료.